



문 의	특허심사2국 컴퓨터시스템심사과	과 장 박제현 사무관 경연정	042-481-5776 042-481-3452
	2017년 12월 2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12월 19일(화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	

빅데이터 활용 위한 정보검색 분야 특허 출원 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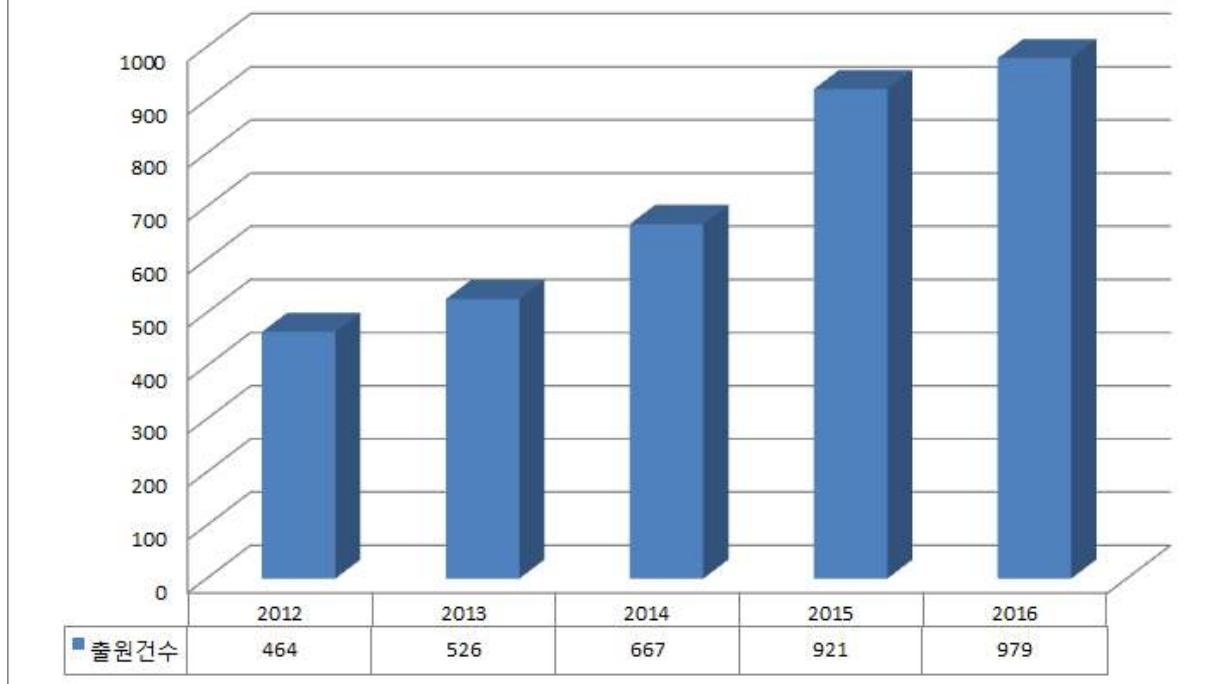
모 포털사이트는 “유상무 잘생겼다”를 검색하여 검색순위 끝자리가 ‘39’인 경우 상품을 받는 이벤트를 열었다. 그리고 이는 네이버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. 그런데 왜 유상무씨는 그 포털사이트에서만 이런 이벤트를 했을까? 해답은 특허에 있었다. 해당 포털사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검색어에 대한 검색 등수를 산출하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. 1분 동안 이메일 200억통, 구글 검색 200만회¹⁾가 생성되고 있는 빅데이터에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기술인 정보검색 분야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.

- 특허청(청장 성윤모)이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인 정보검색분야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본 결과, 특허출원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.[붙임 1]
- 연도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, 2012년 464건이었던 출원 건수는 2013년 526건, 2014년 667건, 2015년 921건, 2016년 979건에 달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평균 21.1%의 출원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, 이는 최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관계가 큰 것으로 풀이 된다.

1) 국립중앙과학관, 빅데이터 설명 자료

- 출원주체별 출원 동향은, 내국인이 75%, 외국인이 25%를 차지하고, 내국인의 75% 중 기업은 40%로 다수(중소기업 22%, 대기업 18%)이고, 대학 및 출연연구소가 24%, 개인이 11%인 것으로 조사되었다.[붙임2]
- 대기업의 출원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, 중소기업과 대학·연구소의 출원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검색기술이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.
- 다출원 기업을 보면, 삼성전자 190건, 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 161건에 이어, 네이버, 마이크로소프트(MS), 구글이 뒤를 잇고 있다.[붙임 3]
- 글로벌 검색분야의 강자인 구글, 네이버, MS가 정보검색분야에 다출원하고 있고, 특히 대표적 출연연구소인 ETRI가 MS와 더불어 5년 연속 특허출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.
- 정보검색분야의 최근 2년간 세부 기술분류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, ‘효율적 데이터 저장’이 26%, ‘인터넷 검색’이 19%, ‘DB시스템 구조’가 14%, ‘자연어검색’이 13%, ‘이미지 검색’이 8%, 기타 20%로 나타났다.[붙임4]
- 특허청 박제현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은 “최근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미래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는바, 정보검색분야의 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우리 기업, 특히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(단위 : 건수)

<최근 5년간 정보검색분야 특허출원 건수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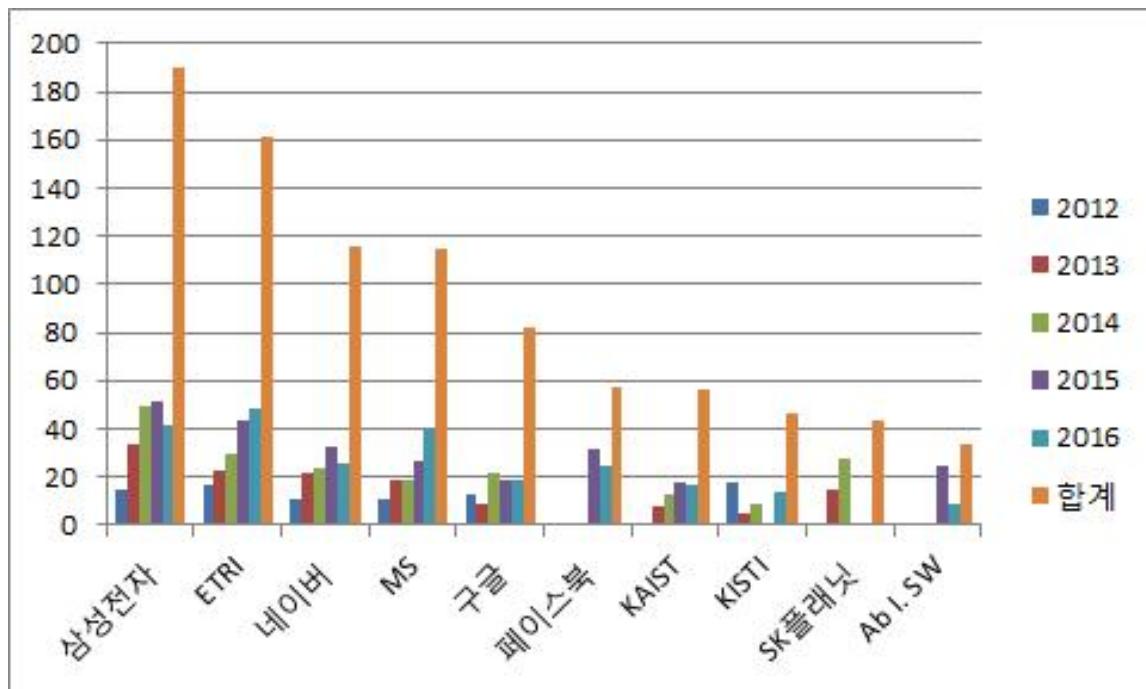
붙임2**정보검색분야 출원주체별 특허출원 동향****<출원주체별 출원비율>**

(단위 : 건수)

<최근 5년간 출원주체별 출원추세>

붙임3**정보검색분야 특허출원 다출원 기업**

(단위 : 건수)



<세부 기술분류별 출원비율>

